



세계관으로 본 음악

성경은 우리의 매일의 삶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현대를 사는 우리와 특히 기독교 음악인에게 다음과 같은 본질적·비본질적인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됨을 선포한다.

- 음악을 하는 이유와 책임, 창조와 예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하나님께서 음악의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과 그분의 뜻을 음악에서 찾는 것이 우리에게 창조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말하는 인본주의자의 말이 사실인가?
- 예술적인 곡과 교회 음악(종교곡)은 어떤 구분을 갖는가?
- 왜/어떻게 음악 교육을 하는가?
- 음악의 왜곡과 그 결과는? 음악 때문에 죄를 더 짓는다면 해결 방법을 없는가?
- 현재의 음악 활동(교회를 포함하여)은 정상적이거나 건장한가?
- 음악과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하늘 나라와 음악의 관계는?

정말 많은 질문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아래의 글들은 목회자로서도 아니고 물리학자나 수학자도 아닌, 순수 작곡을 전공한 사람의 음악적 지식에서 출발하여 여러책과

고민을 통해 정리한 것이며, 아래의 정리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대답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 음악 감상이나 악보가 곁들여 진다면 좋겠지만, 많은 부분을 상상에 맡기게 됨에 양해를 구한다.

음의 근원은 소리

소리의 근원은 창세기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발하신 말씀이다. 만물이 말씀하심 따라 창조된 것처럼 음악이 사용하는 소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창조된 것들은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다. 자연의 법칙들이 그것이고, 그 많은 법칙 중에서 소리의 법에 대해 나누려고 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소리의 원리

소리의 물리적 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소리는 소음과 음향으로 나누어 진다. 돌멩이가 물에 떨어지면 동그랗게 사방으로 고른 원을 그리며 퍼지고, 물결은 멀리 갈수록 약해지고 언더가 부딪히면(장애물) 반대로 흘러간다. 바람이 일면 물결이 빨라지기도 하고, 빨리 멈추어지기도 하며, 고른 물결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소리는, 이런 물결

MEMBERS COLUMN

의 움직임과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져 증폭되지만, 물결과는 다르게 눈으로는 볼 수 없다. 두 물체가 부딪히면 소리가 발생하고, 그 소리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 공간 안에 증폭되고 전달된다. 소리의 색깔도 이 부딪치는 물체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고 공기의 흐름, 부딪히는 곳의 재질에 따라 다른 울림을 만들어 낸다. 이 공기의 흐름, 즉 기류를 음파(음의 파도)라고 한다. 말하는 것, 새들이 우는 것, 빗소리, 천둥소리 등 모든 자연의 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라 어딘가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공기를 타고 울리며(진동) 우리의 귀에 도달한다.

소리의 진동이 불규칙적으로 퍼질 때는 북소리, 천둥소리, 떠드는 소리처럼 음(pitch)으로 구별할 수 없는 소리(불규칙한 진동=소음)가 나지만, 고르게 퍼질 때(고른 진동)는 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음향)를 만든다. 1초에 440번 고르게 진동하는 음을 우리는 가운데 C 위의 A음으로 서로 약속한다. 더 나아가 음향 안에서 협화와 불협화의 변화와 비율을 통해 음악 역사를 구별할 수 있고, 소음과 음향의 사용빈도에 따라 스타일이나 장르 등을 분리할 수 있다.

음악은 음향과 소음의 균형있는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고 예술적인 음악은 과학적이고도 수학적인 조합을 넘어선 질서있는 화음, 리듬, 선율의 예술적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대부분, 악보가 남아있는 중세와 르네상스나 바로크 음악은, 음악의 주요소인 선율과 화음을 위주로 하는 ‘음향’을 사용한다. 고전과 낭만시대 또한 늘어난 타악기(음이 없는 악기들-소음을 사용)역할에도 불구하고 음향의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화음이나 선율을 제외하여 비선율적/비화음적/비리듬적 소음의 요소들을 강조하여 새로운 소리를 찾아 몸부림치는 현대음악에도 음향이라는 요소는 더욱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음악의 요소(원재료와 음악의 재료 비교)

리듬, 선율, 화성, 강약, 음색 이 다섯 요소는 음악에 나타나는 요소들이다. 이 중에서 강약이나 음색은 다른 세 요소에

비해 장식의 의미가 많고 특히 주된 요소에 해당되는 리듬과 화음과 선율은 음악의 몸을 이루는 요소이다. 주된 요소에 대해 짧게 비교해 보겠다.

리듬이란 단어는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달과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통해 우주에는 규칙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무지카 문다나(Musica Mundana; 천체 음악-보이티우스)라고 이름 지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을 부인하는 과학자들도 세상의 움직임에 질서와 규칙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리듬이라는 말은 그때보다 음악 안의 작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실 이 천체의 움직임은 삶의 속도와 음악의 속도를 결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이다. 화음이란 소음(불규칙적인 진동)이 아닌 규칙적인 진동으로 이루어진 음들(pitches)의 수직적(vertical)이고 질서 있는 조합이다. 화음의 법칙(질서)을 화성법이라고 한다. 화성법은 시대의 음악 문화와 언어를 따라 점점 변하지만 시대적 균형과 질서를 준수 한다(18-19세기). 선율은 화음의 음들(pitches)이 수평적(horizontal)으로 펼쳐진 것으로 선율을 만드는 법칙(대위법)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하는 음악 언어에 맞추어 균형과 질서 안에서 꽃을 피운다(~16-18~20세기). 리듬과 화음, 선율을 필요상 나누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 세 요소는 음악이라는 틀 안에 섞이면서 서로를 더욱 돋보이도록 상호 보완하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삶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해 왔다.

하나님의 창조 재료인 원재료와 인간이 창조하는 2차 재료 비교

	원재료	2차 재료=음악의 재료
리듬	temporal, sequential aspect	tempo, meter, duration of notes
선율/화성	frequency	pitch조합
강약	volume, amplitude	dynamics
음색	wood, metal, skin	tone color

먼저 리듬을 보자. 지구가 도는 빠르기(tempo aspect)와 그



안에서 사는 생명체가 만드는 패턴을 가지는 움직임=리듬 (sequential aspect)은 규칙성과 다양한 리듬의 패턴의 조합을 전제한다. 음악의 빠르기(안단테-모데라토-알레그로)와 박자(2/4, 3/4)와 그 안에서 연주되는 다양한 음의 길이는 전체 우주의 법칙(무지가 문다나), 그 빠르기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즉,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1초를 몇 개로 분할하느냐에 따라 빠르기가 결정되고(예: mm, 108~120 moderato 보통빠르기) 2혹은 3을 소그룹으로 묶어 박자를 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일정한 지구의 회전(공·자전)과 그 시간을 분할한 다양한 빠르기와 리듬과의 비율이 역사를 거치며 음악의 다양한 리듬 스펙트럼(기보법과 함께)을 생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걷는 걸음과 그 옆에 강아지가 함께 걷는 리듬을 잠시 상상해 보자. 사람의 걸음을 2박자의 연속적인 4분 음표(규칙적인 속도라고 가정)로 묘사한다면 네발 가진 동물은 때로는 2박 때로는 3박, 혹은 셋잇단 음표 등 다양한 리듬을 만들 것이다. 정해진 빠르기와 서로 다른 리듬 식가의 결합은 규칙성이라는 배경과 그 위에 얹어지는 리듬 그룹을 만든다. 하나님의 우주 기초는 정말 통일성 있고 끝도 없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진다. 생각할수록 재미있는 음악적 설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화음/선율의 음 재료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파수(frequency)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440번 진동하는 음을 A(가운데 도 음역)로 정했을 때 한 옥타브 위의 동일음의 진동수(frequency)는 880이고, 한 옥타브 아래의 같은 음은 220이 된다. 옥타브간 동일음(octave identity)의 개념이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수학적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기에 그 기초 위에 두 음 사이를 여러 음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가능성 중에 7개의 스케일이 만들어지고 변화음 5개가 들어오는 과정과 역사를 통해 평균률(12개로 동등하게 나누어 7개의 흰 건반키와 5개의 검은 건반키)로 나누어지는 과정은 참으로 흥미롭다.

소리의 강약(dynamics)은 모든 자연의 소리의 강약의 모방에서 시작하며, 다양한 악기소리(음색)는 자연의 서로 다른 악기재료(나무, 가죽, 혹은 쇠 종류)에서 출발한다. 물론 악기는 인간의 창조물이다. 단 원재료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창조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악기 창조, 음악 창조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리에서 시작한다. 음악의 기초 환경인 공기의 진동과 공명으로 그리고 자연의 재료와 소리의 법칙이 먼저 존재하기에 지금의 오케스트라와 나라별 다양한 음악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되심과 전지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고, 인간의 창조는 그 기초 위에 제 2의 창조를 하는 인간의 위치를 정하는 자리가 된다. 즉, 맑은 자로서의 겸손과 감사,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요구되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음악 활동의 시작이다.

참고목록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진 에드워스 비이스) 나침반 기독교 문화관(로버트 E. 웨버), 엠마오
예술과 성경(프란시스 쉐퍼),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음악, dcty 꿈을 이루는 사람들
Music in the Balance (Franc Garlock & Kurt Woetzel) – Majesty Music

글. 이경원

